

자연주의적 인식론의 한계

김도식

(이화여대 철학과 강사)

THE LIMITS OF NATURALISTIC EPISTEMOLOGY

DOESIK KIM

(PHILOSOPHY, EWHA WOMANS' UNIV.)

요약

인지의 주체로서 마음을 연구하는 인지과학은 인간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탐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전달체계(information processing system)를 밝힘으로써 이를 컴퓨터에 응용하려는 것이 그 목적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식론도 어떤 명제를 믿는 것이 정당성을 갖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명제를 믿어야 하느냐는 규범적 문제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형성하고 있느냐는 서술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는 자연주의적 인식론이 큰 세력을 얻게 되었다. 자연주의적 인식론의 대두와 함께, 그것이 규범적인 문제를 다루는 전통적인 인식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많은 철학자들이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 중 콰인(W. V. O. Quine)은 자연주의적 인식론이 전통적인 인식론을 대체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하였으며, 콘블리쓰(Hilary Kornblith)는 전통적인 인식론과 자연주의적 인식론이 같은 목표를 향한 다른 방법론을 쓰는 것이므로 적어도 전통적인 인식론자들은 자연주의적 인식론의 영향을 받아야만 한다고 단언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두 사람의 논증을 살펴보고 전통적인 인식론과 자연주의적 인식론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1. 들어가는 말

현대는 컴퓨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냉장고나 TV처럼, 컴퓨터도 필수적인 생활 용품으로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컴퓨터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증권 시세와 같은 정보를 얻는 것은 보편화되었으며, 조만간 은행일이나, 쇼핑 심지어는 회사일까지도 집에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러한 컴퓨터 문화의 발달이 오늘날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인지과학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 시대의 철학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가 많으며, 정보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인지과학은 컴퓨터 시대에 등장하게 된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지과학이 전적으로 철학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인지과학은 심리학, 언어학, 컴퓨터과학, 신경과학 등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철학도 이에 일조를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최근에 철학의 한 분과인 인식론에도 인지과학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조류가 일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식론은 어떤 기준을 만족시켰을 때 한 사람의 믿음이 정당화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인식적 견지에서, 적어도 용납

되거나 합리적임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인식적인 의무라고까지 생각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식 정당화란 본성상 도덕적인 정당화와 마찬가지로 규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식 정당화에 대한 분석이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전통적인 인식론'이라고 불러왔다.

인지과학의 영향을 받은 인식론자들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규범적인 물음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형성하는가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체계의 서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질문에 더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우리는 '자연주의적 인식론'이라 부른다. 자연주의적 인식론자들이 묻는 물음은 이미 심리학 (특히 인지심리학)에서 제기했던 것이며, 이 질문의 의의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자연주의적 인식론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단순히 우리의 인지 과정 혹은 믿음 형성 과정과 같은 서술적인 문제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서술적인 인식론이 규범적인 전통적 인식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콰인(W. V. O. Quine)은 인식 정당화 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규범적인 인식론은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자연주의적 인식론으로 완전히 대체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대체론을 주장한 사람이었고,

콘블리쓰(Hilary Kornblith)와 같이, 규범적인 인식론을 당장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전통적인 인식론은 궁극적으로 자연주의적 인식론에 의존한다는 온건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자연주의적 인식론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설명하고, 콰인의 논증과 콘블리쓰의 논증을 살펴본 후에 그들의 논증이 그들이 원하는 결론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함을 밝히고 전통적 인식론과 자연주의적 인식론의 관계를 필자 나름대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II. 자연주의적 인식론이란 무엇인가?

전통적인 인식론이란 '앓'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에 대한 철학이었다. 다시 말해서, 흔히 우리는 '나는 고래는 포유류라는 것을 안다'라는 말을 쓰는데, 전통적인 인식론의 관심은 도대체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내가 고래는 포유류라는 명제를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즉 앓이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와 이러한 조건이 성공적으로 제시되었다면 어떤 명제들을 믿었을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가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게티어(Edmund Gettier)의 논문¹⁾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정당화된 참 믿음이 앓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여겨졌었다. 이 필요충분조건 중에서 '참' 즉 '진리'의 문제는 요즘 주로 논리철학에서 다루며, 믿음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심리철학이나 언어철학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앓에 대한 분석이 인식론의 핵심적인 문제라고는 하나 앓의 필요충분조건에 나타나는 조건 중 인식론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인식적 정당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인식 정당화의 문제가 최근 삼십년동안 인식론의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져 왔던 것이다.

결국 전통적인 인식론의 문제는 어떤 명제를 믿는 것이 정당화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려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했던대로 인식 정당화가 규범적인 개념으로 정당화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인식적 의무라면, 전통적인 인식론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물어질 수 있다.

Q1)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가?²⁾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는 질문 Q1)에 대해 인식론자들이 답을 구할 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믿음을 형성하느냐는 인식 형성의 서술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는 거의 하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형성하는 믿음 중에는 정당화된 믿음도 있지만, 단순한 추측이나 희망사항으로 야기된 정당화되지 않은 믿음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리이러한 방식으로 믿음을 형성한다고 해서 그러한 믿음 형성 과정을 통해 얻어진 믿음이 모두 정당화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인식론자들에 의하면, 믿음 형성에 관한 다음의 질문에 대한 연구는 인식론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심리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였다.

Q2) 우리는 실제로 어떠한 믿음을 갖는가?

Q1)은 규범적인 질문인데 반하여 Q2)는 서술적인 질문이다. 그런데, 자연주의적 인식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통점은 Q1)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Q2)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연주의적 인식론이란, 전통적 인식론에 비해서 Q2)의 질문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인식론의 새로운 흐름이다.

III. 콰인의 대체론과 문제점

콰인에 따르면, 전통적인 인식론의 역사는 데카르트로부터 내려오는 토대론(foundationalism)의 역사이며 이러한 토대론의 역사는 한 마디로 말해서 실패의 연속이었다. 토대론에 따르면, 믿음들이 정당화되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기초적 믿음(basic belief)으로 이러한 믿음의 정당화는 다른 정당화된 믿음에 의존하지 않으며, 다른 하나는 비기초적 믿음(non-basic belief)으로 이들의 정당화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다른 정당화된 믿음에 의

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론이 완성되려면, 어떤 믿음들이 다른 정당화된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당화될 수 있는 기초적 믿음인가가 설명되어야 하고, 또 이러한 기초적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비기초적 믿음이 정당화되는가도 밝혀져야 한다.

데카르트의 토대론에 따르면, 기초적 믿음이란 간단히 말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믿음, 즉 예를 들어 내게 지금 붉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와 같이 현재 나의 의식세계에 대한 믿음들이며, 이러한 기초적 믿음으로부터 연역을 통해 비기초적 믿음이 정당화된다. 데카르트의 토대론에 대하여, 콰인은 내겐 지금 붉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기초적인 믿음으로부터 내 앞에 붉은 것이 있다는 믿음이 연역적으로 도출되지는 않으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각적 경험으로부터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내 앞에 붉은 것이 있다는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를 데카르트의 토대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토대론은 문제점이 있다고 결론을 짓는다. 이러한 데카르트적 토대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므로, 콰인의 주장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결론으로부터 도출하는 새로운 결론은 훨씬 더 근본적이다.

그에 따르면, 데카르트의 토대론은 실패작인데 그것이 실패작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통적인 인식론의 문제 제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어떤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우리의 믿음이 정당화되느냐 하는 규범적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며 이와 관련된 의미있는 질문이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믿음을 형성하느냐는 서술적인 물음이다. 예를 들어, 만약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신이 어떻게 우주를 만들었는가?”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어떻게 우주가 생겨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콰인에 의하면, Q1)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신이 어떻게 우주를 만들었는가?”와 같이 대답될 수 없는 질문이며, 그와 비슷한 질문 중에 의미 있게 물어질 수 있는 질문은 Q2)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결론은 단순히 데카르트적인 토대론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식 정당화를 핵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인식론을 포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형성하느냐 하는 서술적인 인식론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콰인에 따르면, 이러한 서술적인 인식론이 전통적인 인식론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콰인의 이러한 주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데카르트가 역사적으로 토대론의 대표자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그의 이론이 토대론의 전부는 아니다. 오늘날 데카르트의 토대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대부분의 토대론자들이 알고 있으며, 따라서 비기초적 믿음이 기초적 믿음으로부터 논

리적인 연역을 통해서만 정당화된다고 주장하는 토대론자들은 없다. 적어도 귀납적인 추론이나 확률적인 추론도 기초적 믿음으로부터 비기초적 믿음으로 정당성을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토대론이 실패작이라고 해서 토대론 전체가 실패작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

설령, 토대론이 어떤 형태로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인식론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토대론 이외에도 정합론(coherentism), 신빙론(reliabilism), 증거론(evidentialism) 등등 토대론의 대안으로 전통적인 인식론의 물음에 훌륭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들이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인식론을 포기하기 전에, 이들 이론들이 인식 정당화의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콰인은 보여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전통적인 인식론이 왜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지, 즉 왜 Q1)이 대답될 수 없는 잘못된 질문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단순히 데카르트의 토대론이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전통적인 인식론의 물음이 왜 잘못된 질문인가를 말해주지 못한다.

콰인의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형성하는가 하는 서술적인 인식론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형성해야 하는가 하는 규범적인 인식론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콰인이 말하는 자연주의적 인식론이란 우리가 감각적인

자극이나 경험으로부터 어떻게 믿음을 형성하는가 하는 심리학에서 주로 다루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감각적 자극과 믿음 형성의 관계는 인과적인 혹은 법칙적인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를 콰인은 “어떻게 증거가 이론(믿음)과 관련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한다.³⁾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콰인이 말하는 증거와 믿음과의 관계를 인식 정당화에 대한 이론인 증거론에서 말하는 증거와 믿음과의 관계와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⁴⁾ 증거론에서 말하는 증거와 믿음과의 관계는 어떻게 증거가 믿음을 인식적으로 뒷받침해 주느냐,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어떻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정당화시켜 주느냐를 설명하는 것이지만⁵⁾ 콰인이 말하는 증거와 믿음의 관계는 단순한 인과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증거론과 콰인의 자연주의적 인식론이 “어떻게 증거가 믿음과 관계하는가?”라는 같은 문장으로 질문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질문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증거론에서 다루는 정당화의 문제가 어떻게 콰인이 말하는 인과적 연구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궁으로 남는다.

이제까지 콰인이 주장하는, 자연주의적 인식론이 전통적인 인식론을 대체해야 한다는 이론을 검토해 보았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콰인의 주장은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데카르트의 토대론이 실

패했다고 해서 전통적인 인식론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데카르트의 토대론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토대론이 전통적인 인식론의 핵심 문제인 인식 정당화의 성공적인 분석을 제시할 수도 있고, 설령 토대론 전체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른 이론들이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어떻게 감각적인 경험으로부터 믿음을 형성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인 콰인의 자연주의적 인식론은 그 성격상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형성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전통적인 인식론을 대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연주의적 인식론은 감각적 경험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인과적이나 법칙적으로 연결되어있나를 연구하는 서술적인 학문임에 반하여 전통적인 인식론은 감각적 경험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은 정당화해주는가에 대한 규범적인 학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자연주의적 인식론자들이 콰인을 자연주의적 인식론의 창시자라고 인정하면서도 그의 대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IV. 콘블리쓰의 자연주의적 인식론과 문제점

콘블리쓰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Q1)에 대한 연구와 Q2)에 대한 연구는 독자적으로 진행되었다. Q1)에 대한 연구는 철학, 특히 인식론에서 전

적으로 말아서 했었고, Q2)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에서 했었다. 일반적으로 Q1)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인식론자들은 Q2)의 연구 결과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Q2)를 연구하는 심리학도 Q1)의 연구 결과에 좌우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그들 학문들이 가지고 있는 협력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Q3) 우리가 실제로 믿음을 형성하는 방식이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믿음을 산출하는가?

만일 Q1)에 대한 답과 Q2)에 대한 답이 같다면, Q3)에 대한 답은 “예”일 것이고 만일 Q1)과 Q2)에 대한 답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Q3)에 대한 답은 “아니오”가 될 것이다. Q3)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그것이 인식론의 연구나 심리학의 연구에 흐름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왔다. 인식론자들은 앞, 특히 인식 정당화에 대한 더 나은 분석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인지 체계를 좀 더 정확히 밝히려려고 노력할 뿐이다. 왜냐하면, 인식론자들이 묻는 규범적인 문제는 심리학자들이 묻는 서술적인 문제와는 전적으로 독자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⁶⁾

이러한 전통적인 생각에 콘블리쓰는 반기를 든 것이다. 그가 옹호하는 자연주의적 인식론에 따르면, Q1)은 Q2)와 독립적으로 대답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⁷⁾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형성하느냐는 서술적인 문제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는 규범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Q1)이 Q2)와 독립적으로 대답되어질 수 없다”는 콘블리쓰의 주장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Q1)이 Q2)와 독립적으로 대답될 수 없다”는 명제가 “Q1)에 대한 대답이 Q2)에 대한 대답의 도움 없이 전적으로 독자적인 대답을 제시할 수 없다”를 의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Q1)과 Q2)가 각각 독자적인 영역의 질문을 하고는 있지만, Q2)의 대답은 Q1)에 대한 대답의 도움이 적어도 조금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Q1)이 Q2)와 독립적으로 대답될 수 없다는 것이 이러한 뜻이라면, 전통적인 인식론자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보수적인 전통적 인식론자들은 위와 같은 의미의 콘블리쓰의 주장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앞’의 분석, 특히 ‘인식 정당화’의 분석은 a priori한 작업이라 생각하여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형성하는가와 무관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통적인 인식론자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믿음을 형성하고 있는가가 올바른 인식 정당화의 분석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인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데카르트의 토대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의 이론을 받

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붉은 물건을 보고 내 앞에 붉은 것이 있다는 명제를 믿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데 데카르트의 이론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붉은 물건을 보고 내 앞에 붉은 것이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근거가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형성하느냐에 대한 예가 되며, 이러한 예가 데카르트의 이론에 대한 반증례가 된 것이다. 이 경우에 Q2)에 대한 대답의 일부가 Q1)에 대한 대답, 즉 '인식 정당화'의 분석에 큰 영향을 준 것이다. 이러한 예는 단순히 데카르트의 이론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Q1)의 물음은, 우리가 정당화된 믿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인식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경우, 어떤 믿음이 정당화된 믿음인가라는 질문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며, 정당화된 믿음의 분석을 제시할 때 항상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실제로 형성하는 근거가 있어 보이는 믿음, 즉 정당화된 믿음이나, 또는 실제로 형성하는 근거가 없는 믿음, 즉 정당화되지 않은 믿음 중에서 제시하려는 분석에 대한 반증례가 없는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인식론이 우리가 어떤 믿음을 형성하는가 하는 Q2)에 도움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콘블리쓰가 주장하는 "Q1)이 Q2)와 독립적으로 대답되어질 수 없다"는 명제는 위와 같이 "Q1)에 대한 대답이 Q2)에 대한 대답의 도움없이 전적으로 독자적인

대답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콘블리쓰의 주장은 단순히 심리학이 인식론에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만을 공부해도 인식론에서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콘블리쓰가 이야기하는 좀 더 강한 의미의 주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Q1)이 Q2)와 독립적으로 대답되어질 수 없다"는 다른 의미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Q2)의 대답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로부터 Q1)에 대한 대답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콘블리쓰는 '약한 대체론'(weak replacement thesis)이라 부른다. 약한 대체론은 좌인과 같이 Q1)이 대답되어질 수 없는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Q1)에 대한 대답은 궁극적으로 Q2)에 대한 대답이 완성되면 자연스럽게 대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콘블리쓰가 전통적인 인식론의 연구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주장은, 언젠가 Q2)에 대한 대답이 완성되었을 때 Q1)에 대한 대답도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Q2)에 대한 대답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약한 대체론이 옳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전통적인 인식론의 문제가 심리학의 문제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때까지는 인식론과 심리학이 독자적인 연구를 서로 비교 검토하면서 상부상조해야 한다는 것이다.⁸⁾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은 심리학 혹은 자연주의적 인식론이 전통적인 인식론을 어떤 식으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간단히 말하면, 자연주의적 인식론과 전통적인 인식론은 두 가지의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동업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콘블리쓰의 약한 대체론이 옳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전통적인 인식론자들이 실직할 염려는 없다는 것이다.

Q2)의 대답을 통해서 Q1)의 대답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콘블리쓰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조사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 만약 “Q2)의 대답을 통해서 Q1)의 대답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콘블리쓰가 주장하는 바라면, 그의 “Q1)은 Q2)와 독립적으로 대답되어질 수 없다”는 그의 주장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설령 Q2)의 대답을 통해서 Q1)의 대답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Q1)에 대한 대답이 Q2)에 대한 대답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답되어질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Q1)을 대답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면, Q2)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Q1)에 대한 대답을 도출할 수도 있고, Q2)에 대한 대답의 도움없이 전통적인 인식론자들이 독립적으로 성공적인 대답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는 Q2)의 대답으로부터 Q1)의 대답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콘블리쓰의

주장, 즉 Q1)의 질문이 Q2)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기로 하겠다.

Q1)이 Q2)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유명한 다아윈(Darwin)의 적자생존에 대한 이론이다. 적자생존론에 따르면, 인지 능력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한 동물은 살아 남지를 못했다는 것이다. 즉 주어진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종류의 동물들은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서 도태되고 말았으므로, 주어진 환경에 제대로 적응한다는 것은 옳바른 인지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도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에서 살아남은 종족이므로 우리 역시 옳바른 인지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인지 능력이 생존에 필요한 참을 믿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인지 체계가 우리로 하여금 참인 명제를 믿게 하는 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우연적으로 실현되었다기 보다는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른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⁹⁾ 따라서 우리의 믿음 형성 과정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을 산출해왔다는 것이 콘블리쓰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Q3)에 대한 대답은 ‘예’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Q2)의 대답으로부터 Q1)의 대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증이 가지고 있는 전제는 참인 명제를 믿는 것이 우리가 믿어

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참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라는 주장,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식적인 의무가 참을 믿는 것이라는 주장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때로는 참을 믿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을 경우도 있고, 거짓된 명제를 믿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아무런 근거 없이 다음 주 주택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될 것이라는 명제를 믿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몇 백만분의 일의 희박한 확률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권이 다음 주에 1등에 당첨된다고 가정하자. 물론 다음 주에 추첨이 끝나고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1등 당첨 발표가 된 번호와 내가 가지고 있는 복권의 번호를 확인한 후에 내가 주택 복권 1등에 당첨되었다는 명제를 믿으면, 그 명제는 참이면서 내게는 정당화된 믿음이다. 하지만, 아직 발표가 안된 상태에서 내가 그 명제를 믿었다면, 그 명제가 참이라 하더라도 내게 정당화된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추첨이전에, 내 복권이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몇 백만분의 일이라는 나의 지식은 내가 주택 복권 1등에 당첨되리라는 나의 믿음을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화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인식적인 의무라고 한다면, 참인 명제를 믿는 것이 모든 경우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거짓인 명제가 내

게 정당화되어서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나의 인식적인 의무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은 H₂O라는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물의 화학 구조가 H₂O가 아니라 XYZ라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에 물이 XYZ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우리는 여전히 물이 H₂O로 구성되어 있다는 명제를 믿는 것에, 비록 그 명제가 거짓이라 할지라도, 정당성을 가진다. 따라서 거짓인 명제를 믿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적인 의무인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참인 명제를 믿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인식적인 의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참인 명제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인식적인 의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참인 명제를 믿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바라는 주장 속에는 Q1)에 대한 답이 Q2)에 대한 대답과 독립해서 있을 수 있는데 그 답이 바로 참인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위 논증이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콘블리쓰의 논증이 건전해서 그가 원하는 결론, 즉 Q2)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Q1)에 대한 대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는 더 이상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Q2)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Q1)에 대한 대답을 도출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Q1)에 대한 대답과 Q2)에 대한 대답을

각각 완성한 후에 그 두 대답을 비교했을 때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이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Q2)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Q1)에 대한 대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결론은 Q1)에 대한 독자적인 답이 이루어진 후에도 가능한 것이므로, 콘블리쓰가 주장하는 전통적인 인식론이 심리학이나 자연주의적인 인식론에 의존적이라는 명제를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콘블리쓰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은 그가 Q3)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Q3)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Q1)에 대한 답없이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점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Q3)을 “우리가 실제로 믿음을 형성하는 방식이 항상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을 산출하는가?”로 이해했을 때 대답은 부정적이어야 한다. 이 대답은 전통적인 인식론을 옹호하는 보수적인 인식론자들이 독단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형성 과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심리학자들의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그 실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

실험 대상이 된 여러 사람에게 영이는 대학교 때 철학을 전공한 총명하고 직언을 꺼리지 않던 여학생으로 재학중에 사회 정의의 문제와 남녀 평등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시위에도 빈번히 참여하였다고 설명하고, 영이가 졸업 후에 다음의 들 중 어느 쪽이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

겠냐고 물었다.

- 1) 영이는 은행원이 되었다.
- 2) 영이는 여성운동가인 은행원이 되었다.

그 결과, 놀랍게도 2)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대답한 사람이 1)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대답한 사람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아서 2)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 사람이 약 85%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2)는 영이는 여성운동가라는 명제와 영이는 은행원이라는 명제를 연연(conjunction)으로 연결한 것으로 확률 계산에 따르면, 2)의 확률이 1)의 확률보다 클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실험에 따르면, 이 특정 경우에 85%의 사람들이 사용한 믿음 형성 과정이 거짓된 믿음을 산출한 것이다. 여기에서, 2)의 확률이 1)의 확률보다 크다는 명제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믿는 명제이지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 명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 예는 Q3)의 양화사를 ‘모든 경우’로 보았을 때, Q3)의 답을 부정적으로 해야만 함을 보여준다.

혹자는 필자의 주장이 Q3)의 양화사를 ‘모든 경우’로 본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며, Q3)의 양화사를 ‘대부분의 경우’로 본다면, 콘블리쓰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Q3)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으므로, 콘블리쓰가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Q3)를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콘블리쓰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론

인 Q2)의 대답으로부터 Q1)의 대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그의 주장, 즉 자연주의적 인식론이 전통적인 인식론을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믿음 형성 과정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을 생산해낸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가끔은 우리의 믿음 형성 과정이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믿음을 산출한다는 뜻이며, 이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기준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믿음을 형성하는지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콘블리쓰의 논증을 어떻게 해석해도 그가 원하는 결론은 정당하게 도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이제까지 자연주의적 인식론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설명한 후에, 자연주의적 인식론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콰인과 콘블리쓰의 주장을 살펴 보았다. 만약 필자의 입장이 옳다면, 콰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Q1)이 대답될 수 없는 무의미한 질문이 아니며, 콘블리쓰가 주장하는대로 Q2)의 대답으로부터 Q1)의 대답이 도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콘블리쓰가 지금 당장 전통적인 인식론의 문제가 심리학의 문제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때까지는 이 두 학문이 독자적인 연구를

서로 비교 검토하면서 상부상조해야 하는 같은 목표를 가진 동업자라고 한 것으로 볼 때, 그는 우리가 Q3)에 대한 대답을 먼 훗날에 '예'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연주의적 인식론이 전통적 인식론을 앞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전통적인 인식론자는 Q1)에 대한 연구를 완성하고, 심리학자는 Q2)에 대한 연구를 완성한 뒤에 왜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믿음을 형성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교육을 통해 교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모든 경우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만을 실제로 갖는 날이 오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이 먼 훗날에는 Q1)에 대한 대답과 Q2)에 대한 대답이 같을 것이므로 Q2)의 대답으로부터 Q1)의 대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굳이 전통적인 인식론을 하지 않아도 Q1)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고, 설령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가능성의 실현이 전통적인 인식론의 가치를 하락시키지는 않는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려면 Q1)에 대한 연구가 독자적으로 완성되어야 하며, 심리학자들이 Q2)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Q1)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의 잘못된 믿음 형성 과정을 고쳐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콘블리쓰의 주장대로 자연주의적 인식론을 'Q1)이 Q2)와는 독립적으로 대답되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론으로 정의

하고 논의를 이끌었지만, 만일 자연주의적 인식론이 단순히 Q2)에 대한 답을 구하는 학문, 즉 우리의 인지 체계에 대한 심리학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연주의적 인식론의 가치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Q2)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당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왜 정당화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또 자연주의적인 인식론의 관심사 중의 하나가 미래에 Q3)에 대한 답을 '예'로 만드는 것이라면 이 또한 전통적인 인식론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인식론과 자연주의적인 인식론이 상호 협조해야 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주>

1. Edmund Gettier, "Is Justified True Belief Knowledge?", *Analysis* 23, 1963.
2. 전통적인 인식론이 Q1)에 대한 답을 연구하는 것이라는 필자의 설명은 콘블리쓰의 논의를 따른 것이다. (Hilary Kornblith, "Introduction: What is Naturalistic Epistemology?", *Naturalizing Epistemology*, 1979, P.1 참조).
사실 Q1)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Q1)의 질문이,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하는 명제가 있고, 또 믿으면 안되는 명제가 있음을 전제

'앞'이나 '인식적 정당성'은 개개의 인간과 명제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특정 명제가 나에게는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나는 그 명제를 알지만, 다른 사람은 그 명제를 모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Q1)에 대한 연구는 우리 모두에게 정당화된 명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며, 따라서 내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집합과 다른 사람이 믿어야 하는 믿음의 집합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3. W.V.O. Quine, "Epistemology Naturalized", *Ontological Relativity & Other Essays*, 1969, P. 83.
4. Jaegwon Kim, "What is 'Naturalized Epistemology'?", *Philosophical Perspectives* 2, *Epistemology*, 1988, PP. 389 - 391.
5. Richard Feldman and Earl Conee, "Evidentialism", *Philosophical Studies*, 1985.
6. Hilary Kornblith, 앞의 글, PP. 1 - 3.
7. 앞의 글, P. 3.
8. 앞의 글, PP. 7- 8.
9. 앞의 글, PP. 4 - 5.
10. Tversky and Kahneman, "Extentional versus Intuitive Reasoning: The Conjunction Fallacy in Probability

Stephen Stich, *The
Fragmentation of Reason*, 1990.
PP. 6 - 7.에서 인용함.